



멕시코와의 친선경기를 앞둔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9일(한국 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지오디스파크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제공

차범근·홍명보와 어깨 나란히... 손흥민, A매치 최다출전 1위 눈앞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LAF)의 A매치 최다 출전 1위 달성이 임박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한국 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 파크에서 멕시코와 9월 A매치 2번째 평가전을 벌인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로, 13위인 멕시코보다 10계단 밑이다.

홍명보는 지난 7일 '15위' 미국과의 1번째 평가전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당시 손흥민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해 이재성(마인츠), 이동경(김천)과 호흡을 맞췄다.

손흥민은 전반 18분 이재성이 건넨 침투 패스를 이어받아 선제골을 터뜨렸고,

홍명보호, 10일 오전 10시30분 멕시코와 격돌 "항상 팀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도움 될지 생각"

전반 43분 문전에서 이동경에게 패스해 추가골을 도우며 맹활약했다.

미국전을 통해 A매치 통산 135경기 출전을 쌓은 손흥민이 한국 축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을 눈앞에 뒀다.

손흥민은 오는 멕시코전에 출전할 경우 홍 감독,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함께 남자 A매치 최다 출전 공동 1위(136경기)로 발돋움한다. 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홍 감독은 미국전 당시 후반 18분 손흥민을 교체로 불러들여 체력을 안배했다.

A매치 득점은 52골로, 차 전 감독(58골)에 이어 남자 A매치 최다 득점 2위를 달리

고 있다. 지금 기세라면 내년에 개최될 북중미 월드컵 전후로 차 전 감독의 기록도 경신할 전망이다.

손흥민은 지난 2010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친선 경기 중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돼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함부르크, 레버쿠젠(독일),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를 거치며 월드컵클래스로 성장한 손흥민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축구대표팀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손흥민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회(2011·2015·2019·2023), FIFA 월드컵 3회(2014·2018·2022)를 누비며 한국 축구의 전설로 거듭났다.

올여름 손흥민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LAF에 전격 입단했다.

주 포지션이었던 측면 원어에서 중앙 공격수로 포지션을 굳힌 모습이다.

미국전 종료 후 손흥민은 "항상 팀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하며 플레이하려고 한다"며 "선수들도 내게 많이 맞춰주고 있어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순간마다 발전된 모습으로 팬분들한테 인사드리겠다"며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팀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뉴시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오른쪽)가 9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2회말 투런 홈런을 친 뒤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후, MLB 통산 10호 홈런 포함 3안타 폭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홈런 5방으로 11-5 승리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매섭게 방망이를 돌리며 홈런을 포함해 3개의 안타를 때려냈다.

이정후는 9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홈런 2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20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후 홈런 생산이 멈췄던 이정후는 이날 15경기 만에 시즌 8호 안타를 그렸다. 지난해 빅리그에 데뷔한 이정후의 통산 10번째 홈런이기도 하다.

이 홈런으로 이정후는 전날(8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해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마감한 아쉬움을 털어냈다.

시즌 타율은 0.267에서 0.271로 올랐다.

팀이 0-3으로 뒤진 2회말 1사 1루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오른손 선발 투수 나빌 크리스맷의 시속 118.6km 낮은 커브를 건어 올려 추격하는 우월 투런 홈런을 날렸다.

이날 승리로 샌프란시스코는 2연패 수렁에서 탈출했다. /뉴시스

이정후는 다음 타석에서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달성했다.

4-4로 팽팽히 맞선 4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이정후는 왼손 불펜 브랜던 가르시아의 시속 152.4km 높은 시구를 공략해 중전 안타를 때려냈다.

하지만 패트릭 베일리 가 병살타를 쳐 이정후는 2루에서 아웃됐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행운이 따랐다.

이정후는 6회말 무사 1, 2루에서 번트를 때고, 상대 포수가 포구에 실패한 사이 1루 베이스를 밟았다. 이는 내야 안타로 기록됐다.

이후 크리스티안 코스가 2루타를 친 사이 3루에 도달한 이정후는 베일리의 희생플라이 때 득점을 추가했다.

7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2루수 땅볼에 머물렀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73승 71패)는 이정후를 비롯해 엘리엇 라모스, 도미니크 스미스, 멧체프린, 베일리가 홈런을 터트리면서 11-5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샌프란시스코는 2연패 수렁에서 탈출했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 친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시공 운임 3만 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에이치원/건설

FDIC 연대신인개발

062) 607-8338

5·18 최후항쟁지 옛 전남도청, 양궁 메카로 변신... 지역민 관심

45년 전 5·18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였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일대 5·18 민주광장이 광주2025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지역 양궁 메카로 '잠시' 변신했다.

전체 8일의 대회 기간 중 무려 6일 동안 치러지는 결승전이 모두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특설 경기장에서 치러지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9일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대회 컴파운드·리커브 종목 개인·단체·혼성전 각 금메달 결정을 등 주요 경기가 5·18민주광장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7~8일 치러진 컴파운드 혼성·단체전, 남자 개인전 메달 수상자들 모두 민주광장 특설 경기장에 마련된 포디움에서 영광의 순간을 누렸다.

조직위는 이번 대회 결승전이 치러지는 곳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공간이자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인 민주광장과 옛 전남도청 일대를 낙점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신군부 폭압에 맞서 민주·평화·인권을 염원하며 도청으로 모인 대학생·시민들이 민족민주대성회를 연 항쟁의 산실이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선 시민군이 상황실 등을 설치한 항쟁 근거지이며, 5월27일 계엄군 최후진압 당시 마지막까지 분투한 5·18 대표 사적지다.

특히 민주광장 일대가 대회의 슬로건으로 정해진 '평화의 울림'과도 맞아떨어졌다는 점이 크게 유효했다. 슬로건에는 '평화의 땅' 광주에서 쏘아올린 화



지난 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16강, 대한민국 국가대표 최용희의 차례에 관중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살의 울림이 전세계에 퍼지는 '평화의 메아리'가 된다는 의미가 담겼다.

1980년 5월 항쟁의 주요 무대였던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은 장소 자체로서도 대회 슬로건 '평화의 울림'을 상징하는 만큼 대회를 통해 이같은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라는 뜻이다.

시민들은 이같은 의미를 담아 마련된 경기장이 생소하면서도 눈길을 끈다고 입을 모은다.

서포터즈 최순규(64·여)씨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모일 줄만 알았던 광장에 경기장이 들어선다니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지만 막상 객석에 올라 경기를 두 눈으로 보니 생각보다 실감나게

잘 꾸며져 있었다"며 "대회를 빌어 앞으로 광장의 또 다른 역할이 기대된다"고 칭찬했다.

관객 임미진(45·여)씨도 "공간이 다소 협소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양궁장이 무리 없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놀라우면서도 생경했다"며 "국제경기 등 앞으로 광장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 계기가 자주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대회 오는 12일까지 8일간 76개국·선수 731명이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는 47개국·445명이 출전한다.

/김명수 기자